

NO. 1

제시문 ( 라 ) 의 관점에서 보면 동물실험을 긍정적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. ( 도표 1 ) 은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죽음이 인간이 실험용으로 죽인 동물보다 현저하게 많음을 볼 수 있다. 또한, ( 도표 2 ) 에서 인간의 행동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원리로 살아가는 동물은 계획 실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. 즉, 비인간적은 요소가 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( 도표 3 ) 을 통해 인간치료법에 큰 이익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다.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간의 동물실험은 충분히 이익을 주면서 비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옹호한다.

그러나, ( 나 ) 의 입장에서 볼 때 도표들은 단지 인간의 폭력성과 종 차별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. ( 도표 2 ) 와 같이 인간과 유사함에 따라 종을 분류하여 서열시키는 부분에서 종 차별주의를 전제한 것을 볼 수 있다. 또한,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인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동물들은 인간보다 열등하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도 보인다. 따라서, 제시문 ( 나 ) 는 ( 라 ) 가 인간의 종 차별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자료로 사용할 뿐이라고 할 수 있다.

그에 반해, 제시문 ( 다 ) 는 [ 도표 2 ] 같은 인간과 유사한 행동이나 원리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실험에 계획 쓰이지 않기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. 즉 [ 도표 1 ] 과 [ 도표 2 ] 를 종합적으로 보면 인간성에 큰 훼손을 입히지 않는 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그 선에서 실험을 하여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도표 [ 3 ] 에서 볼 수 있기에 제시문 ( 다 ) 는 동물실험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.